

# “계엄 상처 입은 국민에 배상”...尹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국민에 공포·불안·수치심 안겨 이금규·김정호 변호사 공동 제안...1차 집단소송 원고는 105명

국민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는 1차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1차 집단 소송 원고는 105명으로 전국에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지원자 중 선별했다. 1차 집단 소송 원고를 105명으로 정한 것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투표를 포기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별로 서울 24명, 경기 28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한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은 홍콩 교포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고,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전국 집단 소송으로 공동제안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다만 승소 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집단 소송 제안서를 통해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차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면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법리 검토 끝에 국가배상소송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1996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호사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인용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김정호 변호사는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1시간여 만에 1차 소송 원고가 모집됐고, 이후 참가 희망자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시민 불복종의 하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변호사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원고의 소송을 다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안문에 밝혔듯 관련 소장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해 그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2차 집단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대동정신 실천 6500만원 추진기금 전달

광주·전남 지역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원금 기부에 나서서 등 대동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10일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광주 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시민과 단체들로부터 6500여만원의 추진기금을 전달받았다. 이 중 시민이 낸 기금만 4300여만원에 이른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명태군수 공천개입 폭로 이후 11월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달까지 개인 100여명과 85개 단체의 지원으로 추진위원 기금 1900여만원을 모았으나, 지난달 23일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를 개최하면서 대부분 소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민의 분노가 모여면서 일주일 만에 추가로 4500여만원이 모였다. 특히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하루 현장모금액만 1000만원을 넘어서었다. 계좌 후원자들은 입금자명에 ‘윤석열 탄핵’, ‘5월의 광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모금에 나선 정모씨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낸다”며 광주 비상행동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여러 단체와 기업에서도 물론 후원과 재능 기부가 이어졌다. 집회 무대 시스템 업체는 15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지 않았다.

또 각종 기업과 단체에서 핫팩 7000여개, 오월어머니집에서 주먹밥 3000인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어묵을 5·18민주광장으로 보냈다.

광주 비상행동은 시민의 후원금은 피켓과 현수막 제작, 무대 영상 제작과 무대·음향 장치 대여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에남 광주진보연대 총무국장은 “시민들이 선결과제로 집회 참여자에게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나누고, 어린 학생들이 말없이 다가와 의자를 깔아주고 뒷정리를 돕는 등” 매일 광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5·18 정신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시민단체 ‘비상행동’ 출범...윤석열 탄핵·처벌 촉구

### 광주기독교단협의회 시국기도회 전남대 ‘계엄 대응 기획단’ 총집회 지방의원들 삭발식·침묵 시위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광주 비상행동)’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110개 시민단체는 10일 오후 전일빌딩에서 광주 비상행동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 비상행동은 기존 탄핵촉구 집회를 열어온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을 승계한 공식기구다.

같은 날 오후 3시 광주YMCA무진관에서 광주기독교단협의회 등이 주최한 ‘광주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시국기도회에서 노은미 광주YWCA회장은 “헌법 유린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많은 피와 눈물로 지킨 자유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 광장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을 들어달라”고 염원했다.

이날 시국기도회 참가자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윤석열에게 더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며 “광주 기독교인은 하루빨리 참담한 나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응하는 ‘비상계엄 대응 기획단’을 구성하고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에서 열린 광주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비상계엄·탄핵 무산 시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학생 총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남대 제53대 총학생회 ‘HEY DAY’는 이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 30여명이 모여 ‘비상계엄 대응 기획단’을 결성했다.

기획단은 첫 공식 행사로 오는 14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전남대 비상계엄 대응 총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서는 총학생회와 학생대표 등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전남대 구성원들의 성토의 장을 열 예정이다. 전남대 구성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자 접수 없이 현장에서 즉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홍구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비상계엄 발동에 이어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며

“이번 총집회는 광주가 가진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는 세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삭발식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지방의원들은 11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회의원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탄핵 요구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한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05일 임시주주총회(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신천길 64-8  
청산인 박종희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광 525-3761	• 신 222-8171
	• 양 571-7658	• 오 266-7801
	• 동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구	• 남 673-6836	• 백 651-1833
	• 북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윤 376-7153
	• 치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월 959-1920
	• 함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